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은 불멸의 령도업적

박사 부교수 김 성 옥

1. 서 론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에 의하여 국력이 결정되고 나라와 민족의 지위와 전도가 좌우되게 된다. 때문에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자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오늘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공업,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며 첨단기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고있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과 선전실들을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근로자들이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배우며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기풍이 확립되었다.

이 글에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력사적진군길에서 과학기술을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짓부시고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고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여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다.

2. 본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과학기술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강국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발전에서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의 애국심과 우리 인민의 슬기와 민족적자존심을 폭발시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비약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여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중시를 우리 당의 전략적로선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지침을 밝혀주신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든 부문의 발전을 추동하며 과학기술의 높이에 의하여 사회전반의 발전높이와 속도가 규제되게 된다.

인민의 꿈과 리상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며 위대한 창조와 변혁을 이룩해나가는 강국건설과정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인민경제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현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1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과학기술중시사상을 구현하여 생산과 건설을 과학화하여야 한다》를 비롯한 고전적로작들에서 우리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구현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갈데 대하여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가 남들이 수십년동안에 이룩한 발전단계를 뛰어넘어 앞서나갈수 있게 하는 추동력이 바로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며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튼튼히 틀어쥐고 경제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며 생산과 건설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서것을 과학기술발전의 목표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를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야 나라의 과학기술전반을 빨리 발전시키고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첨단돌파전은 현대과학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쥐고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나가기 위한 사상전, 두뇌전이라고 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기수, 전초병들이며 첨단돌파전에서의 성과여부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창조력을 얼마나 높이 발휘하는가에 달려있다.

과학기술발전에서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으며 세계적인것을 창조해나가는 첨단돌파전은 바로 과학자, 기술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을 기본추동력으로 하는 사상전이며 그들의 창조력을 발동시켜나가는 두뇌전이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면 과학자, 기술자들의 정신력과 함께 창조력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아무리 정신력이 높아도 창조력이 그에 따라서지 못하면 과학기술발전에서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할수 없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강한 정신력에 높은 창조력이 안받침될 때에만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할수 있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첨단과학기술의 명맥을 틀어쥐는가 틀어쥐지 못하는가 하는데 따라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발전수준이 좌우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지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겁을 먹고 패배주의에 빠질것이 아니라 첨단과학기술분야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술을 자기 힘으로 개발하려는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내세우고 남이 걸어온 단계들을 뛰어넘으며 공격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을 비롯한 핵심기초기술과 새 재료기술, 새 에너지기기술, 우주기술, 핵기술과 같은 중심적이고 견인력이 강한 과학기술분야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이미 마련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들에 힘을 넣어 세계패권을 쥐며 그 성과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우주과학부문에서 첨단을 돌파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비상히 높인 것처럼 전반적과학기술발전에서 비약을 일으켜나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구상이다.

우주과학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표대로 하여 최단기간내에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인높이에 올려세우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함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기초과학연구에 응당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기초과학은 과학기술발전의 주추이다. 기초과학이 든든해야 나라의 과학기술이 공고한 토대우에서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다.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부문에서 과학기술발전의 원리적, 방법론적기초를 다져나가면서 세계적인 연구성과들을 내놓아야 한다.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자면 과학기술의 종합적발전추세와 사회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경계과학을 개척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 과학연구의 분야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방법들이 적용되는데 따라 응용과학, 경계과학들이 새롭게 개척되고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필요한 분야들을 우리 식으로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며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오늘날 과학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다.

우리가 강성해지고 잘사는것을 바라지 않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짓밟개버리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과학기술성으로 옹호하고 빛내어나가자면 과학기술이라는 기관차를 앞세우고 모든 부문이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기술로 경제발전의 길을 열고 과학기술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학기술적방안과 실행대책을 명확히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또한 인재를 중시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인재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과학기술발전을 떠메고나갈 과학기술인재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연구개발능력을 세계적으로 앞선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 전체 인민들을 과학기술인재로 튼튼히 준비시키고 그들의 역할에 의거하여야만 나라의 과학기술발전목표를 앞당겨 점령할수 있고 그 위력도 더욱 높이 떨칠수 있게 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는것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에서도 성과를 거둘수 없다는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과학기술의 주인,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과학자, 기술자들의 공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어 그들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작전과 지도관리를 바로하고 과학연구개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성과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제때에 받아들이는것도 중요한 방도이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새로운 비약의 지름길을 명시하심으로써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첨단수준에 끌어올리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국가의 권위와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개를 높이 떨치도록 하신것이다.

우주과학기술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를 이루며 위성과 운반로케트의 보유는 사회주의강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중대한 문제이다.

더우기 우리의 우주정복의 길은 나라의 우주과학발전을 저지시키려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정치군사적압력과 력사상 최악의 경제적제재가 감행된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주체101(2012)년 12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발사에서 성공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과학기술위성을 쏘올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실력전,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통쾌하게 쏘올려 나라의 우주정복에서 세계적수준을 돌파할데 대한 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우주정복의 길은 단순한 과학의 길이기 전에 혁명의 길, 자주, 자립의 길이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수령옹위전, 당정책사수전이며 우리의 자주권을 빼앗으려는 적대세력들과의 치렬한 계급투쟁이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요구와 세계우주개발발전추세에 맞게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최단기간에 우주정복실현의 목표를 반드시 수행해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과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운반로케트로 첨단기술의 집합체이며 정수인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인류가 무한대한 우주공간에 인공지구위성을 쏘올린 때로부터 수십년이 되고 자기의 궤도를 따라 돌고있는 위성의 수도 적지 않지만 위성을 자기의 운반로켓으로, 자기의 발사대로 궤도에 진입시키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주정복은 누구나 쉽게 이룰수 없는 매우 거창하고도 어려운 사업이다.

주체102(2013)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오도록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국가방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쏘올리기 위한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비롯한 관련시설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였다.

우주개발법과 국가우주개발국이 나오고 그 관련시설들이 일떠섬으로써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며 국가의 모든 우주활동을 통일적으로 진행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새로 연구개발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성과적으로 발사하여 세계적수준에 올라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보여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와 서해위성발사장을 거듭 찾으시여 위성발사준비정형을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주체105(2016)년 2월 7일에는 위성의 발사과정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우리의 우주과학자, 기술자들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극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우주과학분야에서 또다시 첨단을 돌파하고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올려세웠으며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 나라의 자주적권리와 무진막강한 국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하였다.

한겨울의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사소한 편차도 없이 지구관측위성을 자기의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킨것은 우리의 위성운반기술과 로켓조종기술이 매우 높은 경지에 올라섰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가까운 앞날에 정지위성을 우주에 쏘올리는것을 우주개발의 당면목표로 내세우시고 새형의 정지위성운반로켓개발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이처럼 우리 공화국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단기간에 여러차례의 위성발사를 통하여 시험위성으로부터 지구관측위성으로 단번 도약했을뿐아니라 자기의 운반로켓과 발동기로 위성을 발사할수 있는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였다.

주체적인 과학기술력량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발사후 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주체화한 위성들이 날아오르게 됨으로써 주체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태양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으며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우리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올라설수 있는것은 천재적인 예지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결코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해나가는데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었다.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들여 키워주신 주체조선의 혁명적지식인들이며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나갈 영예로운 사명을 지니고있는 우리 당의 과학전사들이다.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전략과 정책적과업들이 성과적으로 집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과학기술전선의 주인인 과학자, 기술자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자들이 조선로동당기발아래서만 과학연구사업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전반적인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인공지구위성을 성과적으로 발사하는데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배워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11월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가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을 심장에 새겨안고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힘있게 추동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핵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기술부문에 힘을 넣으며 특히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확고한 연구대상에 힘을 집중하여 세계적수준에 올라서도록 하며 그에 토대하여 전반적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104(2015)년 6월 어느 한 연구원을 찾으시고 농산과 축산, 파수, 원예 및 원림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효능이 높고 인체와 토양, 생태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21세기 생물농약을 연구개발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해당 나라의 과학기술수준은 중요하게 생물기술연구 및 응용분야의 발전수준에 따라 평가된다고 하시면서 이곳 연구원에서 이룩한 성과는 우리 나라가 첨단과학기술의 정수에 당당히 올라섰다는것을 보여준다고, 우리의 과학자들이 새로운 생물농약연구개발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의 요새를 점령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힘으로 강국을 건설하려는 당의 전략적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한것으로 된다고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관심하시던 천연흑연이 명실공히 조선의 귀중한 재부로 빛을 뿌리도록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을 세심히 보살펴주시고 주체적인 흑연공업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청년들이 세계적안목과 대국적자존심으로 두뇌전, 기술전을 맹렬하게 벌려 첨단돌파의 선구자, 패권자가 되고 쟁쟁한 재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청년들이 불타는 애국의 열정으로 사색하고 탐구하여 하루를 백날 천날맛잡이로 주름잡으며 첨단과학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나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나라의 자랑인 련하기계개발자들이나 위성연구집단에서 젊은 연구사들이 핵심적역할을 한것만 보아도 주체교육을 받은 우리 청년들의 실력이 간단치 않다는것을 알수 있다.

청년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굽어보면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수한 과학기술력량이 자라나고 과학연구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었으며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핵심기초기술과 우주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이룩됨으로써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조선지식인의 슬기와 재능을 과시할수 있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추진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남의것을 가지고 세계적첨단을 돌파하는것은 우리 식의 첨단돌파전과 아무런 인연이 없다. 첨단을 돌파하자는 목적은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주려는데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첨단을 돌파하고 지식경제시대의 창조물들을 마련해나가도록 하시였다.

나라를 진정으로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마련해주려면 우리의것으로 우리 식, 우리의 멋을 내는 훌륭한것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8월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여러가지 첨단기계제품을 개발하는것과 함께 경비행기들을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하여 이 공장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긴장한 전투를 벌려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경비행기들의 구조와 성능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몸소 경비행기에 오르시여 리착륙시험비행도 해보시며 잘 만들었다고 치하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으로 현대적인 우리 식의 지하전동차를 만들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사실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현대적인 지하전동차를 자체의 힘으로 새로 개발생산한다는것은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이 공장의 로동계급은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로운 지하전동차를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고 모든것을 우리의 힘과 기술로, 우리 식으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철리를 천백마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준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들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그후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은 새형의 80hp트랙도르와 5t급화물자동차를

비롯하여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충정의 로력적선물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견본모방의 길이 아니라 개발창조의 초행길을 헤쳐가며 우리 식, 우리 기술, 우리 힘으로 첨단기술의 세계를 점령해가는 불굴의 정신력과 비상한 두뇌가 어떤 기적을 창조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을 추동력으로 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실현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사업을 떠나서 결코 생각할수 없다. 과학기술에 의거하여서만 자기의 힘과 기술, 자체의 자원에 의거하여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주체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다그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원료와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중핵적인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주체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시고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 제힘으로 일떠설 각오와 배심이 없이 다른 나라를 쳐다보면서 수입에 의존하여서는 사회주의자립경제의 위력과 생활력을 발휘할수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입병을 없애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9월 천리마타일공장을 찾으시고 공장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설비와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모두 자체로 해결하였으며 무연탄을 가스화하여 새 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 공장은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주체104(2015)년 10월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에 대한 현지지도가 일군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던 수입병을 근원적으로 없애버리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일군들속에서 수입병을 없애고 주체화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지고 원료, 연료, 설비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나날 과학자, 기술자들이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깊이 자각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주체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며 과학자, 기술자들이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통마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폭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과들을 내놓음으로써 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11월 과학자, 기술자들과 노동계급의 창조적지혜와 애국적열정에 의하여 첨단수준에서 현대화된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을 찾으시고 현대화의 중핵은 설비의 주체화에 의한 현대화라고 가르쳐주시면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에네르기, 동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힘을 넣도록 하시였다.

에너지와 동력이 없이는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아무리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과 문화생활거점들이 꾸려져있다고 하여도 에너지와 동력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도하시면서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에너지문제해결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연에너지에 대한 연구를 앞을 내다보고 적극적으로 진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었다. 그리고 국가과학원에 연구소를 새로 내고 자연에너지에 대한 연구사업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추진해나가도록 하시었다.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켜나갈수 있게 하는 위력한 추동력은 다름아닌 과학기술이다.

현시기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를 실현하는데서 우리 식의 발전된 통합생산체제와 무인조종체제를 확립하는것은 중요한 과제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6월과 주체103(2014)년 5월 어느 한 기계공장을 현지도하시면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 정밀화, 고속도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며 공장들을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 통합생산체제가 실현된 수자화된 공장으로 전변시켜 공업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단계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으며 어느 한 공작기계공장에 꾸려진 무인화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무인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무인화를 실현하는것을 현대화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었다.

주체104(2015)년 12월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전변된 어느 한 기계종합공장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도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힘있게 추동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전반적인 생산 공정들을 에너지절약형, 로력절약형으로 전환하며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는데 중심을 두고 단계별로 추진해나가도록 하시었다. 그리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유연생산체제를 확립하고 생산조직과 지휘, 경영활동을 정보화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며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 통합생산체제가 실현된 수자화된 공장들이 련이어 일떠서고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과학기술과 생산을 일체화한다는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을 하나로 결합시킨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생산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성과에 기초하여 생산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한다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과학기술로 생산을 발전시킬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주체107(2018)년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한 근본열쇠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다그치는데 있다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연구성과들을 공유하고 도입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강조하시고 여러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생산과 과학기술을 밀착시키고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창조한 귀중한 연구성과들이 과학전시관의 전시물로만 남아있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과학연구성과들과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이 하나의 통일적인 과정으로 되도록 행정적, 경제적, 법률적대책들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도록 하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첨단돌파전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나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며 과학으로 흥하는 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세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나가도록 하신것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과학기술을 위력한 추동력으로 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도록 하시였다.

과학기술은 어느 한두사람의 노력이나 개별적집단의 힘만으로는 빨리 발전시킬수 없으며 여기에는 국가적노력과 사회적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과학기술발전에 투자를 아끼지 말고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며 누구나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하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이 차넘칠 때 나라의 과학기술은 빨리 발전하고 강국건설위업은 힘있게 다그쳐지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모든 일군들속에서 과학기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를 결정적으로 바로잡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는 곧 당과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된다고 간곡히 가르쳐주시고 모든 일군들이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과 여러 기계공장을 현지지

도하시면서 생산장성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으며 과학기술을 떠나서 새 제품개발과 생산장성, 질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도록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시면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비결도, 생산장성의 열쇠도 과학기술에서 찾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일군들은 증산의 돌파구가 과학기술에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일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과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국가과학원을 현지지도하시면서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국가과학원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연구조건을 잘 보장해 주기 위하여 부문별연구소들을 새로 꾸려주도록 하시고 설계로부터 건설력량과 설비와 자재 등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과학자들은 과학에는 국경이 없지만 자기들에게는 영원히 안겨살 사회주의조국과 어머니당의 품이 있다는 신념을 안고 조국건설에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과라고 높이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인 과학자, 기술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베풀어주신 은정은 김일성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김책공업종합대학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그리고 연풍호에 훌륭히 일떠선 과학자휴양소에 뜨겁게 어려있다.

그리하여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어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풀어나가는 기풍이 확고히 지배하게 되였으며 과학자,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적극 내세워주는 전사회적인 기풍이 철저히 확립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시였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을 소유한 지식형 근로자로, 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로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전민학습의 대전당, 나라의 과학기술보급거점인 과학기술전당을 훌륭히 일떠세우도록 하시고 그를 거점으로 정연한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세우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은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고 주체건축예술을 보여주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과학기술전당을 건축미학적으로나 실용성에 있어서 흠잡을데없이 건설할데 대

하여 강조하시고 설계와 시공, 자재보장을 비롯하여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풀어주시었으며 여러차례 현지에 나오시어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4(2015)년 2월 과학기술전당건설장을 찾으시고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뿐아니라 전체 인민이 마음껏 배울수 있는 배움의 전당, 선진과학기술보급의 중심기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과학기술전당에 와서 최신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배워가도록 과학기술정보를 끊임없이 류통시키는 보급거점 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과학기술전당은 당창건 일흔뒀을 맞으며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완벽하게 반영된 국보적인 건축물로, 과학기술의 높은 목표를 향해 비약해가는 주체조선의 기상을 과시하며 훌륭히 완공되게 되었다.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구상이 집대성된 21세기 전민학습의 대전당인 과학기술전당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기술정보봉사능력과 교육조건을 훌륭히 갖춘 대규모의 종합적인 전자도서관으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모든 단위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고 그를 적극 리용하여 누구나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해나가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공장, 기업소들을 찾으실 때마다 과학기술보급실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잘 꾸리고 새 기술보급기지, 교육기지, 기술교류기지로써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3(2014)년 3월과 5월 여러 기체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생산장성의 비결은 과학기술을 생산에 앞세우고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는데 있으며 과학기술을 떠나서 새 제품개발과 생산장성, 질제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 확고한 관점을 견지하도록 하시고 공장들에서 과학기술보급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여 모두가 현대과학기술을 습득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정상화, 생활화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후에도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그 설비를 다루는 노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지 못하면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과학기술보급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공장, 기업소들에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리는것은 당정책적요구이라고 거듭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특히 청년들이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앞장서며 창고고안과 기술혁신의 능수가 되어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고 원료, 연료와 설비를 주체화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이바지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그리하여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과학기술보급실들이 꾸려지게 되었으며 온 나라에 현대과학기술을 깊이 체득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게 되었다.

원격교육대학들의 규모가 확대발전되어 우리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되었으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생산정상화의 동음이 높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이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첨단돌파의 열풍이 세차게 타번지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어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경제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3. 결 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자립경제발전의 기본동력은 인재와 과학기술이라고 하시면서 인재중시, 과학기술중시기풍을 확고한 국풍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하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 정보화를 적극 다그쳐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하루빨리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첨단수준에 올려세우고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에 의하여 모든 부문이 급속히 발전하는 강국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첨단돌파, 과학기술중시, 전민과학기술인재화